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대형사, 방카슈랑스시장 진출 본격화

-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실적자료에 따르면, 금융위기 이후 주춤하던 방카슈랑스시장 규모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올해 1/4분기(2010년 1월~3월) 은행과 우체국 창구 등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거수된 총수입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46.4%에 달하는 2,10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7.2% 급증함.
 - 불완전 판매 단속 강화 등 정부의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 조치로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던 방카슈랑스시장은 경기 활성화에 따른 보험수요 증가세가 본격화되고 외형성장을 중시하는 중소형보험회사 및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방카슈랑스 채널 영업 확대 전략에 힘입어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인 절반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.
- 대면채널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형 보험회사들도 최근 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지자 방카슈랑스 전문인력을 확충 하는 등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방카슈랑스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.
 - 방카슈랑스시장 규모가 다시 확대되자 중소형보험회사들 및 외자계 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대형보험회사들은 최근 둔화되고 있는 성장력을 회복하기 위해 방카슈랑스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.
 - 핑안보험은 방카슈랑스 경력자들을 연봉 60만 위안(한화 약 1억원)으로 스카우트 하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점유율 확대에 나섬.
 - 중국생명도 올해 5월 약 20명의 방카슈랑스 전문인력을 총원해 고객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, 중국인민보험공사는 방카슈랑스와의 협력모델을 이른바 ‘전면적인 금융협력 모델’로 격상해 방카슈랑스를 주요 채널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이들 대형보험회사들은 현재 중국보험시장이 방카슈랑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데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며, 고객이 은행창구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려는 의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(경제관찰보, 6/21)